



울며... 웃으며... '모내기 동심' 휴일인 20일 광주전남녹색연합에서 마련한 광주시 북구 일곡동 한새봉 '개구리는'을 찾은 어린이들이 직접 모내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포기 시사

### 강운태 당선자, 감사관 등 외부인사 기용 확대키로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가 도시철도 2호선 포기를 시사했다. 또 기존 공무원 조직에 개방형 공모직을 대폭 늘려 능력 있는 외부인사들을 중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20일 강 당선자는 '민선 5기 인수위원회 중간보고회'를 갖고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것보다 시내버스를 전통 시장이나 산업단지, 택지지구 등에 골고루 분산투입하는 것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 당선자는 취임 이후 지하철·노면전차·지상고가 등 건설 방식을 놓고 논란이 됐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것으로 전망된다. 강 당선자는 "브라질의 꾸리치바의 경우 철도 없이 버스만으로 도시 내 교통을 충분히 해결하고 있으며, 도로에 4000여개의 기둥을 설치하는 지상고가는 광주의 미래와 안 어울린다"며 "2호선을 만들더라도 수송분담률이 10%도 안 되는 데 여기에 1호선을 포함해 모두 3조5000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그 동안 도로 중앙에 기둥을 설치해 지상고가를 만들고 가벼운 전동차를 다니게 하는 방식으로

도시철도 2호선(42.5km) 건설을 추진, 국토해양부에 건립계획 승인을 요청해둔 상태다. 강 당선자는 광주시의 조직에 있어서도 큰 폭의 변화를 예고했다. 여성 복지국장·감사관·공보관·인권담당관·일자리창출담당관·투자유치담당관 등 6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해 외부인사를 기용하고, 도시디자인국과 도시교통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강 당선자는 "시장이 바뀌면 그에 따라 조직의 변화도 불가피하며, 개방형 직위에는 공무원도 능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합당한 사람을 선정할 것"이라며 "기구를 줄이면 줄였지 늘릴 생각은 없으며, 도시디자인국과 도시교통국은 각각 사람 중심의 디자인도시 구축과 대중교통 운영·관리의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계획·건축주택·광고물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 도시디자인국은 추후 도시디자인실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에 있어 조직개편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강 당선자는 또 "모든 공직자를 믿고 우선 기회를 주고 평가하겠다"며 "민원처리에 녹장을 부리거나 시민의 지탄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금품수수나 비리가 있는 공무원은 가차없이 원아웃(ONE-OUT)제도를 통해 배척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강 당선자와 민선 5기 인수위원회는 오는 28일께 강 당선자의 공약 시행 로드맵과 광주시 조직개편안 등을 담은 민선 5기 인수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뮤니티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지)과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6·25 60주년 특집 화보-전란 속 광주상무대 개설 ▶5면

## 나이지리아전 투톱 쓴다

관련기사 7·18·19면



허정무호 월드컵 사상 첫 원정 16강 향한 마지막 예선 길목서 투톱 쓴다. 허정무 감독은 23일 열리는 2010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나이지리아와 결전을 앞둔 20일(한국시간) 선발 라인업에 대해 "한두 자리는 바뀌겠지만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지난 아르헨티나전 출격했던 베스트 11을 대거 교체하지는 않을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최전방에 나설 공격진은 투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아르헨티나와 2차전 때 4-2-3-1의 꼭짓점에 박주영(25·AS모나코)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격시켰지만

### 허정무호 마지막 예선 총력전 박주영 파트너 염기훈 가능성

큰 재미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주영은 이청용(22·볼턴)의 만회골을 배달했지만 선제골이 된 자책골을 헌납해 심각한 부담이 커졌다. 아르헨티나의 최전방에 배치돼 고립되는 모습을 자주 보였던 만큼 허정무 감독은 4-4-2 전형으로 복귀해 박주영의 투톱 파트너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투톱을 기용할 경우 박주영의 파트너는 염기훈(27·수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염기훈은 아르헨티나와 경기 때 1-2로 끌려가던 후반 초반 결정적인 득점 찬스에서 원발 슈팅의 한계 때문에 동점골을 사냥할 기회를 놓쳤지만 전담 키커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다음은 수비진 변화이다. 먼저 오른쪽 풀백에 오범진(26·울산) 대신 차두리(30·프라이부르크) 기용이 유력하다. 아르헨티나 경기때 투입한 오범진이 집중적으로 풀리면서 1차전 그리스 경기에 나섰던 차두리 재기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허정무 감독은 개인기가 좋고 발이 빠른 아르헨티나 선수들을 의식해 오범진을 시험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끝났음을 인정했다. 이 때문에 포백 수비라인은 왼쪽부터 이영표(33·알힐랄)-이정수(30·가시마)-조용형(27·제주)-차두리가 설 가능성이 크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오늘밤의 월드컵

포르투갈	G	북한	21일 20:30
칠레	H	스위스	21일 23:00
스페인	H	온두라스	22일 03:30

### 스코어 보드

독일	1 (1승)	0	D	1 (1승)	세르비아
미국	2 (2무)	2	C	2 (1승)	슬로베니아
잉글랜드	0 (2무)	0	0	0 (1무)	알제리
네덜란드	2 (승)	1	E	0 (1승)	일본
가나	1 (1무)	1	D	1 (1무)	호주
카메룬	2 (2무)	1	E	2 (1승)	덴마크

### 본사人事

- ▲李夕友 광고마케팅 국장
- ▲鄭明彦 독자서비스 국장직무대리
- ▲鄭棋太 편집국 서무취체본부장
- ▲姜明烈 경영지원국장 직무대리
- ▲奇賢鎬 기획사업국장 직무대리

오늘 무등기 고교야구 결승 ▶관련기사 19면  
오후 1시 무등경기장 야구장  
북일고 VS 충암고

최고 품질을 선보이는 다채로운 유리 작품 전시  
2010 Gwangju Venice Glass Fantasia  
2010. 6. 19(토) ~ 8. 22(월)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관(구 광주시회비서관)

2010 Gwangju Venice Glass Fantasia  
2010. 6. 19(토) ~ 8. 22(월)  
광주문화예술회관 전시관(구 광주시회비서관)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매주 월요일은 휴일)  
-관람료: 무료  
-문의: 062-271-1111